

올 가을 학술대회 풍성, 미리보는 '주제' 들

토론부제, 식상한 진행, 일방적 주장. 불교관련 학술대회가 외면받는 요인들이다. 그러나 올 가을은 다르다. 불교관련 학회와 연구소들이 준비하고 있는 학술발표회들은 '종교와 권력 변동' '정보 사회와 포교' '사이버 세계와 화엄사상' 등 대중적 관심을 다루기 때문이다.

불교경전 번역문제 7개 주제 나눠 토론
양자역학과 불교연기론의 상관관계 규명
사이버 문제점 화엄사상으로 해결 모색
성철 스님 열반 10주년... '깨달음' 조명

불교학연구회(회장 해주)가 11월 8일 동국대에서 개최하는 '2003년 추계학술발표대회'는 불교경전 번역 문제를 대주제로 7가지 소주제 발표가 진행된다. 이날 학술발표대회는 통광 스님(쌍계사 승가대학 학장)의 기조발제를 시작으로 1분과에서는 허일범(진각대) 교수의 '티베트 대장경 구역의 필요성과 문제점', 전자성(한국빠알리성전협회) 대표의 '불전 번역의 제 문제와 빠알리 문헌' 등의 발표가 진행된다. 2분과 역시 이병욱(고려대) 강사의 '한문 불전 번역의 문제점과 대안 모색', 김무봉(동국대) 교수의 '불전언해의 몇 가지 문제' 등이 발표된다. 불교학연구회 해주스님은 "훈민정음을 보급하기 위해 이뤄진 경전언해 작업에 대한 점검의 시간도 마련돼 있다"고 학술발표대회의 의미를 설명했다. 이외에 10월 24일 동국대 전자불전연구소가 주최하는 학술발표회에서도 동일한 주제가 계획돼 있다. 고려대장경연구소(소장 종필)가 10월 31일 개최하는

'불교의 과학과 철학'은 지난 7월 열린 동일 주제 워크숍(본지 7월 16일자 10면)에서 논의된 양자역학과 불교의 연기론, 현대물리학과 불교의 유사성 문제가 심층 토론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학술발표는 불교와 현대과학과의 만남을 모색, 불교적 세계관을 새롭게 해석해 보는 자리다. 또 불교사회문화연구원의 '사이버세계와 화엄(불교)사상', 현대불교사회문화원의 '정보사회와 포교', 불교학연구원 19차 학술발표 '정보사회적 생활양식에 따른 포교전략 검토'에서는 일상생활 속에서 새로운 공간으로 자리잡은 사이버 세계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다. 특히 '사이버세계와 화엄사상'은 화엄사상이 사이버세계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대안이 될 수 있는지를 탐색하는 새로운 시도가 돋보인다. 10월 15일(음력 9월 20일)은 성철 스님 열반 10주기.

2003년 가을 불교관련 학술발표회 일정 (주최측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Table with 5 columns: 주최, 주제, 날짜, 장소, 연락처. Lists various academic conferences and seminars with their respective dates and locations.

이를 주도하는 국제학술회의 '깨달음의 문화적 지평과 그 현대적 의미'가 10월 16-17일 이틀간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다. 성철선사상연구원(원장 원택)이 주최하는 이번 학술회의는 목장배(서울불교대학원대) 총장, 김경집(동국대) 강사, 천현(뉴욕주립대) 교수, 마리오 포제스키(플로리다대) 교수 등 국내·외 불교 관련 학자 13명의 발표가 준비돼 있다. 이번 회의는 유교·기독교·이슬람 전공자들이 함께한 자리에서 '깨달음'의 문제를 불교적 맥락에서만 보지 않고 깨달음의 다양한 관점을 제시할 계획이다.

오유진 기자 e_exist@buddhapia.com



불상(6)

바위속에 들어 앉은 절

바위의 네 면, 동서남북에 불상을 새긴 것은 사방불이라 부른다. 사방불은 각면에 모시는 불상이 다르다. 예를 들어 서쪽에는 서방극락을 주재하시는 아미타불, 동쪽에는 동방의 약사불, 남쪽에는 정광불, 북쪽에는 칠보당불이 그려진 예이다. 남쪽과 북쪽은 사방불마다 모시는 불상이 약간씩 다르다. 경주 남산의 동쪽 기슭 부처굴에 는 탑곡마애조상군이 있다. 9m 높이의 네 모진 바위 위에 7세기의 조각들이 부조로 새겨져 있다. 그런데 이 바위는 기본적으로 사방불이 중심이지만, 그밖의 다른 상들과 함께 종합적인 군상을 이루고 있다.



경주남산 탑곡마애조상군. 절을 바위 속에 구런 한 독특한 바위조각이다.

옥룡암에서 왼쪽으로 잠깐 올라가면 바위 면이 탑곡마애조상군의 북쪽 면이다. 가운데 앉아 계신 불상

이 놓여 있는데, 이들은 모두 통일신라시대에 조성된 것으로 바위 위에 새겨진 부조보다 시대가 떨어진다. 그리고 서쪽에는 웅색할 정도로 좁은 면이지만 자세히 보면 나무사이에서 선정에 든 불상과 비천이 쌍을 이루고 있다. 이 바위에는 불상뿐만 아니라 탑, 스님상, 공양사상, 그리고 역사상 등 다양한 상

들로 가득 차 있다. 그렇다면 절을 구성하는 분들이 모두 계신 것이 아닌가. 바위 속에 절 하나가 통째로 들어앉아 있는 것이다. 이러한 예는 다른 어느 나라에서도 보기 힘든 독특한 착상이다. 그렇다면 왜 절이 바위 속에 있는 것일까? 그것에는 사방 불로만 해석할 수 없는 다른 무엇이 개재되어 있다. 신라인들이 불교가 들어

9m 높이의 사각바위에 탑곡마애조상군
불상·탑·스님상 등 조각... 신라 정령신앙

을 중심으로 양쪽에 목탑이 서 있고 그 밑에는 사자 두 마리가 지키고 있다. 왼쪽 목탑은 9층으로 고려시대 몽고관 때 불타 없어진 황룡사9층목탑을 연상케 하는 형상이고, 오른쪽 목탑은 7층이다. 쌍탑인 것이어서 왼쪽으로 돌면 동쪽의 바위 면을 마주하게 된다. 이 바위면에는 결과 부처를 들고 앉아 계신 아미타삼존을 중심으로 위에는 비천들이 날고 오른쪽 아래에는 스님이 무릎 꿇고 채 아미타부처님께 방향를 들고 향공양을 하고 있다. 왼쪽으로 조금 더 올라가면 보리수로 보이는 나무 밑에서 선정하는 스님상을 만날 수 있다. 다시 꺾어 남쪽 면으로 올라가면 삼존불이 계신다. 전반적으로 고풍하게 표현한데 양쪽 보살들이 본존을 향해 약간 몸을 기울고 있어 정감이 더욱 넘친다. 그 앞에는 환호로 된 불상과 석탑

오기 전부터 바위 속에 신이 계신다고 믿었다. 정령신앙, 즉 애니미즘이다. 경주 남산의 상사암과 같은 바위에는 불상이 새겨진 곳이 아니지만 지금도 할머니들은 치상을 올리는데 열종이다. 불교가 전래된 이후에도 정령신앙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바위 속의 신이 바위 속의 부처님으로 대체된다. 그래서 경주남산의 불상들은 대개 주위의 불필요한 돌덩어리를 훔쳐 털어내고 바위의 가운데에 있는 불상을 밝혀 드러내 보이는 느낌으로 조각된다. 그런데 탑곡마애조상군에서는 단지 불상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찰 전부가 고스란히 있는 것이다. 이 얼마나 대단한 상상력인가? 사방불의 형식과 애니미즘의 상상력 속에서 이루어진 결정체가 바로 탑곡마애조상군인 것이다.

경주대 문화재학부

제주 사찰문화재 일제조사

문화재청·조계종 조사단 12월까지

문화재청과 조계종 문화유산발굴조사단(단장 탁연)은 8월 26일 조계종 제23교구본사 관음사 포교당 보현사에서 제주지역 사찰문화재 일제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제주지역 일제조사는 △사찰소장 등산문화재관리기반·연구자료 구축과 체계적 관리 △불교등산문화재의 장기적인 보존·관리대책과 활용방안 모색을 목적으로 12월까지 진행된다.

이번 조사는 제주도지역에 위치한 조계종, 태고종, 천태종 등 사찰소장 등산문화재 전체를 조사범위에 포함, 목록화한다. 제주도·북제주군과 서귀포시·남제주군으로 나눈 2개 조사팀은 불교전적·불교조각·불교회화·불교공예·불교석조물 등의 사찰소장 등산문화재에 대한 현장조사와 문헌조사를 실시, 전자자료로 관리할 예정이다.

매년 5억원의 국비를 지원받는 사찰문화재 일제조사는 올해 상반기 전라북도에서 이어 하반기에는 제주 지역 일제조사만을 남겨두고 있다. 오유진 기자



현재 국립중앙박물관 정원에 있는 국보 제101호 지광국사현묘탑(智光國師玄妙塔)의 정확한 출토지점이 규명됐다. 강원문화재연구소 법천사지 발굴조사단(단장 지현병)은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법천사지 발굴 결과, 지광국사현묘탑(국보 제59호·사진 왼쪽) 맞은편의 추정 탑지(사진 오른쪽)가 현묘탑의 원래 위치로 드러났다고

법천사지 지광국사현묘탑 비전지(사진 왼쪽)와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는 지광국사현묘탑(오른쪽). 점선부분이 현묘탑의 원래 위치이다.

지광국사 현묘탑 원래위치 확인

법천사 창건시기 밝혀 유물 발견

모서리 파편 조각 △현묘탑 기반 장식 사자상 발굴을 현묘탑지 규명 증거로 제시했다. 발굴조사단 지현병 단장은 "법천사지 지광국사현묘탑·비전지는 독립공간을 갖고 있는 국내 유일의 탑·비전지"라고 설명했다. 문막=오유진 기자



23일 현장설명회에서 밝혔다. 발굴조사단은 현묘탑의 양식과 동일한 △평면 정방형의 탑지 기초석 △현묘탑 상층기단

파동명상수련을 통하면 영통(靈通)을 이룰 수 있습니다.

파동명상수련 후 스님, 법사님들이 경험하신 이야기를 신고있습니다
여기에는 허락을 하신 분의 사례만 신고 있습니다.

경남 S시에서 포교원을 운영하는 헤민 스님은 평소 건강이 좋지 않아 포교와 수행생활에 많은 지장과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지난 5월 어느 날, 지인의 소개로 본 연구소와 인연을 맺게 되었다. 스님이 파동 명상요법을 통해 깊은 우주의식상태에 빠져들었을 때 스님은 자신의 몸 속에 숨어 있는 수많은 영가들(수백 명이 넘게 보였다고 함)을 보고는 아연실색, 무척 혼란스러워하면서 당황해 했다. 스님이 지금까지 몸의 상태가 불편하고 고통스러웠던 원인이 그 영가들이 뱉어내는 탁한 에너지와 그들이 품고 있는 원념을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그 영가들은 천도의식이나 제령의식때 영가들을 불쌍하게 생각하는 스님의 측은 지심에 동조되어 스님의 몸 속에 들어와 스님을 괴롭혔던 것이었다. 그 다음날 새벽, 수많은 영가들은 그들이 가야할 영계로 통하는 문이 열리자 그 통로를 따라 영계로 사라졌고, 그 이후에 스님의 건강은 놀랄 정도로 회복되었다. 이런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스님들이 영혼에 대한 의식을 할 때는 절대로 그 영가에 대하여 연민이나 측은지심을 가져서는 안되며 냉정하고 빈틈없는 영가법으로 그들이 가야할 길을 안내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었다.

파동명상 지도사 양성 과정

우주에 충만한 생명 파동 에너지와 우주의식(자연의식)을 100% 활용할 수 있는 수련을 통해 인간의 내면에 숨어 있는 놀라운 잠재력과 우주의식을 끌어내어 자신과 타인의 영적(靈的) 문제를 손쉽게 해결하는 영식(靈識)과 능력을 획득하게 되고 자신은 물론 타인의 영적 진화와 발전을 돕는 <영혼 명상 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수련내용

- 파동명상재령: 제주(祭主)또는 신도가 몸속의 영가와 대화할 수 있으며 그들이 떠나가는 것을 직접 목격할 수 있다.
원격명상재령: 제3자가 파동명상상태에서 원하는 사람의 몸속에 있는 영가를 불러내어 대화하거나 제령친도 할 수 있다.
영통靈通수련: 특별한 파동명상 기법을 통하여 영통을 열 수 있게 하는 비법을 전수한다.(영통수련은 상담 후 결정)
수련대상: 스님, 법사, 기공사, 의사, 약사, 기타 상담사
수련일시: 9월 첫째주, 셋째주 (본원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수련과정
1 파동명상 전문반: 파동명상 지도사 수련과정으로 6일간 수련으로 지도사 자격증 수여(수련비 200만원)
2 영통수련반: 상담 후 결정



지도교사 박봉순
2001년 10월 SBS 호기심천국
2002년 4월 KBS VJ특공대
2003년 3월 i-TV 위험한초대 출연